

# 개혁주의적 정통 신학을 추구하는 총신대학교

김 의 환  
총신대 총장



## 1. 연 혁

### 1) 설립배경 및 교육이념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의 설립자 마포삼열 선교사는 하나님나라 확장과 사랑의 실천을 건학정신으로 하였다. 그의 유지를 이은 총신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3대 교육이념을 승계하여 구현코자 한다.

첫째, 청교도적 칼빈주의적 개혁 신학에 입각한 학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

둘째, 본 교단과 국가 및 민족과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할 유능한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교회 음악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연마하고 신앙을 생활화하며 기독교 문화를 창달한다.

### 2) 발전과정

본교의 전신 평양신학교는 1901년 5월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로서 평양 대동문 옆 마포삼열 선교사의 자택에서 개교되어 초대 교장에 마포삼열 박사가 취임하였다.

1938년 9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아래서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급기야 일제로부

터 폐교 조치를 당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그후 1951년 5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36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라 개명하고 초대 교장에 감부열 박사가 취임하였고, 제2대 교장에 박형룡 박사가 취임한 후 대구에 임시 교사를 정하고 수업을 실시하였다. 1960년 8월 본교 교사를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새로이 마련하여 이전하였다가, 1965년 8월에 현재의 위치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31번지 21,400여 평의 교지에 3,540평의 교사를 신축하여 지금까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69년 12월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 대학 인가를 받아 제8대 학장에 김희보 박사가 취임하였다. 1978년 2월 대학원 인가를 받아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1980년 11월에 신학대학원 인가를 받아 목회자와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1987년 11월 대학원 박사과정을 인가받았다. 본교는 1995년 3월 '총신대학교'가 되어 본인이 초대 총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교는 개혁주의적 정통 신학을 추구하며 21세기를 지향하는 목회자와 지도자 양성을 사명으로 교육한다. 교육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총신대학교는 사당 캠퍼스와 양지 캠퍼스의 장기적인 종합 발전 계획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진리 탐구의 기독교 명문 대학교로 도약하고 있다.

## 2. 현 황

7명의 학생으로 개교했던 평양신학교는 일제로부터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도 장족의

발전을 계속하여, 오늘날 총신대학교로 거듭나 1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2,000여 명이 재학하는 세계적인 신학 대학교로서 자리를 굳혔다. 본교는 목회자와 신학자 및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본교 설립이념에 따라, 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최소 학과만을 알차게 교육한다는 취지에서 대학에 신학과, 종교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교회음악과를 두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과 교육대학원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650여 명의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대학원(국제신학과, 지역학과, 외국어학과)과 선교대학원 및 교역대학원을 개설하고자 신청 중이다.

학교 시설을 살펴보면 사당동 캠퍼스에 5,107평의 종합관을 세워 각종 최신 시스템을 설치하여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 교육에 대비하고 있으며, 후생관을 건립하여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영빈관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양지 캠퍼스의 23만 평 부지 중 13만 평을 개발하여 주제 공원화된 교지를 교육에 활용할 뿐더러 각종 수련회 장소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개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여 각종 국내 집회는 물론 '98년 ATA(아시아 신학연맹) 총회를 비롯해 각종 국제회의 및 대규모 국제 집회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채플관이 '97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고, 전교생 기숙사화를 위하여 제3생활관을 신축할 것이며, 사회봉사관, 선교관, 수양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교생 장학생활을 위하여 전국 70개 노회와 6,000여 교회가 후원하는 '1학생 1교회 후원' 운동이 전개되



▲ 충신대는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지구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의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며, 국내·외의 혼탁한 신학에 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고 있다.

본교는 부설기관으로 교회문제연구소, 선교연구소, 기독교교육연구소, 언어연구소, 성지연구소를 두어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학술적 자문 및 연구에 응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6,000여 교회에서 시무하는 15,000여 교역자, 12,000여 장로, 220만여 명의 성도들의 학문적 욕구에 부응하며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목회신학원, 선교연구원, 교회지도자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신학지남사, 출판부, 충신대보사, 충신원보사, 교육방송국, 생활관, 영적 지도자 훈련원, 대학 부속 유치원 등이 있다. 양지 캠퍼스의 도서관은 1,880평으로서 신학교의 도서관 단일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일 뿐 아니라 장서 면에서도 가히 세계적이다.

대학 부속유치원의 경우, 본교 유아교육과의 우수한 교수진과 어린이 교육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교사진의 획기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어린이 교육은 물론 학부모 교육까지 겸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인구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본교는 졸업생들의 취업에 크게 관

심을 가지고 있다. 학과에 따라서는 졸업과 동시에 100%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에서 중견의 자리를 확보한 동문들이 후배들과의 면밀한 교제를 통하여 자문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교수진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많은 교수들이 학자이기에 앞서 목회자 신분임을 상기하여 목자의 심정으로 교단에 서기에 학생들로부터 학문적 조예와 인격적 훈도에 대한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수 동료들간의 두터운 애정과 사제간의 끈끈한 사랑이 '가정 같은 학교'를 만들고 있다.

### 3. 교육 이념의 구현 방법

본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는 최후의 보루로서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지구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의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며 국내·외의 혼탁한 신학에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명한 외국인 교수를 영입하고 외국어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심도있는 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리하여 세계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를 많이 배출했으며 또 배출하고 있으니 신학 교육을 통한 세계 선교는 본교를 통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 아래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설정하고 교육한다.

첫째,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 확신하게 한다.

둘째, 성경의 원리에 따라 목회와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학문과 경건을 훈련한다.

셋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적극적인 학문 활동을 전개한다.

넷째, 분단된 조국을 복음 정신으로 통일하고 조국을 복음화하기 위해 준비한다.

다섯째, 통일 조국을 세계 선교의 터전이 되도록 준비한다.

## 4. 발전 방향

요즈음의 정보화 기술은 전문인들조차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여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좁혀가고 있다. 그런데 정보와 기술의 발전과는 달리 인간성이나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윤리는 무참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지구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인간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하이테크와 역비례하는 인간성과 환경의 파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적인 존재들과 교제함으로써 영성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21세기의 모습이요, 우리가 생활할 사회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신의 장기적인 종합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 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연구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신은 정체성의 확립, 국제화, 정보화, 교학(敎學)협동의 4대 특성을 가진 학교로 발전될 것이다.

### 1) 정체성의 확립

인간성이 파괴되고 영성이 대혼란을 겪게 될 21세기는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할 것인 바, 총신은 지구촌 복음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빈주의적 신앙과 신학을 유지 발전시키고, 성경 무오 사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정통적인 학문을 추구하고자 한다.

## 2) 국제화

총신은 부단한 연구와 각고의 노력으로 확립된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와 세계 전체에 기여하도록 확산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대학협의회, 아시아신학연맹,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지연구소 컨소시엄 등에 가입하여 우리의 학문적 역량을 세계 도처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리폼드 신학교(미국), 풀러 신학교(미국), 벨헤이븐 대학(미국), 맥켄지 장로교 대학교(브라질),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미국) 등과 이미 자매 결연하였으며, 스텔렌보쉬 대학교, 리폼드 성경 대학, 고든 대학, 제네바 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국제사회에 유학생을 파송하고 장학 혜택을 부여하며 교수를 교환하는 등 학문적 교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 3) 정보화

21세기가 요구하는 국제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서관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기획실 안에 전산과를 신설하여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육으로 총신인 전체가 정보 사회의 선두 주자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원격 학습 제도를 도입하여 가정에서도 수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4) 교학(敎學) 협동

대학과 산업체에 산학협동이 있듯이 6,000여 본 교단 교회와 총신은 교학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신앙과 신학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즉, 교회 예산의 1%를 총신을 위해 헌금하며 기도하는 '총신껴안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석좌 교수가 교계의 새로운 열기로 달아 오르고 있는 등 많은 교역자와 교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총신을 사랑하고 있다. 따라서 본교 교수들은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학문과 사랑의 꽃을 2,000여 재학생들에게는 물론이요 총신을 물심 양면으로 후원하고 사랑하는 한국 교단과 국제 사회에 끊임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명실공히 추진하기 위해 연구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을 28:1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인은 총장으로서 장엄한 21세기가 다가오듯 총신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총신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미래지향적·지구촌적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총신대학교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